

중국산업의 고도화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노형진*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Chinese Industry and the Strategy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Hyung Jin Rho *

요약

본 연구는 먼저 대중국 무역 환경변화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황을 고찰하고 중국산업의 고도화 및 구조변화의 양상을 살펴본 다음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당면과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존 사업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 경우 제 자리에 머무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거대한 수익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변하는 중국의 사업환경을 미리 내다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전략을 갖춘 기업만이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advancement of Chinese industry and the strategy of advancing Korean companies into Chi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very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o adapt themselves to Chinese circumstances.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dustry can be a threat to Korean companies, but it can also be an opportunity to Korean companies. It's up to Korean companies' correspondence strategy. The best strategy of Korean companies on the advancement of Chinese industry is development a blue ocean strategy.

▶ Keyword :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 중국위협론(Chinese Threat), 기회(Opportunity),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산업별 대응전략(Industrial Correspondence Strategy)

• 제1저자 : 노형진

• 접수일 : 2007.2.26, 심사일 : 2007.5.01, 심사완료일 : 2007. 5.10.

*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전공 교수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서론

중국은 1978년 대외개방과 함께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강화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 낙후지역개발 등 전략적·선별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고 서부지역, 동북3성 개발 등 중국 국토의 균형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축소하고, 사회보장비 등 기업부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중국(對中國) 투자패턴을 현지완결형 투자체제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며 점차적으로 초기의 경공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전기/전자와 기계류 등의 수출비중이 40% 이상에 이르는 산업구조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보다 진일보된 생산방식 및 품질이 요구되는 산업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 역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5].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몰물듯이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지금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기업들은 무역전쟁의 높은 파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중국 무역 환경변화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황을 고찰하고 중국산업의 고도화 및 구조변화의 양상을 살펴본 다음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당면과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대중국 무역 환경변화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황

지금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후자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전체 수입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고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회복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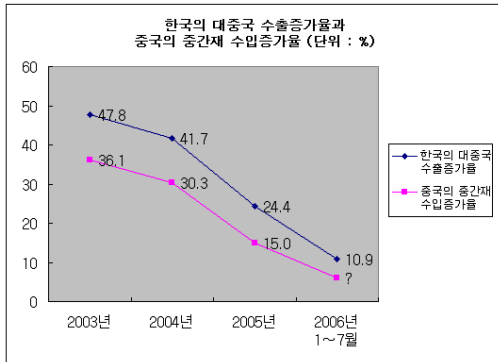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6년 9월 28일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이 중간재인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2004년 40%를 웃돌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005년 24.4%로 줄어든 데 이어 2006년 1~7월에는 10.9%로 감소했다(〈그림 1〉 참조). 품목별로도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컴퓨터,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목이 모두 부진한 실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와 같은 수출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중국은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조립한 뒤 최종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였지만 2003년부터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져 수입대체가 나타나면서 중간재 수입 비중이 뚜렷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 가운데 중간재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대표적 중간재인 부품소재의 경우 2006년 1~7월 수출증가율은 10.1%로 전년 동기 대비 21.9% 포인트나 급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14]가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9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006년 9월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중국 진출 현황 및 애로 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에 진출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49.5%로 2004년 8월에 조사한 결과(24.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서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중국진출 동기로 밝힌 업체는 28%로 2년 전(51.9%)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내수시장 침체를 반영해 새로운 판로를 뚫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과거에 썩 인건비를 찾아 중국에 진출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국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생산, 판매하려는 투자목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진출 기업의 생산·판매 구조변화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조사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중국에서 조립한 후 제3국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를 중국에서 현지 구매하여 생산품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7)
 (그림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과 중국의 중간재 수입증가율
 (Figure 1) Korean Export Increase Rate and Chinese Import Increase Rate of Intermediate Goods

중국진출 기업의 투자형태는 대부분(87.0%)이 '독자'이며, '중국기업과 합자·합작'은 12.0%로 파악되어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 독자의 형태로 투자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 규모는 '생산시설 일부이전'이 35.1%, '생산시설 전체이전'이 25.7%로 나타났으며, 특히 74개 응답 업체 가운데 37.8%가 '기타(신규투자, 현지사무소)'의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진출 후 만족도에 대해서는 93개 응답 업체 가운데 '매우 만족'이 12.9%, '다소 만족'이 37.7%로 50.6%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반면에 중국진출 기업의 절반(49.4%)은 현재 중국 투자진출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중국 현지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36.7%가 '흑자', 37.8%가 '손익분기점에 근접', 25.5%가 '적자'라고 응답했다. 중국 투자기업의 손익분기점 도달 소요(예상)기간은 1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응답 업체(70개사)의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평균 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2004년 이래 매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투자기업의 현지 자금조달 방법은 '현지금융 이용'이 36%, '한국 내 주거래은행 이용'이 26%, '중국진출 국내은행 이용'이 20%, '기타(자체 자금 조달 등)' 18%의 순으로 조사되어, 2004년에 비하여 중국 현지금융 이용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27.3% → 36%) 여전히 중국 투자기업의 중국은행 자금이용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진출 기업의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노무관리의 어려움(높은 이직률)'이 23%, '우수인력(중간관리자) 확보의

어려움'이 22%, '인건비 및 기업부담금 상승'이 22%, '현지 금융 활용의 어려움'이 13.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시에는 '언어문화장벽', '통관절차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경영 애로사항 가운데 인건비 상승률이 '1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8.9%에 이르며, 상승속도가 '한국보다 빠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70.6%에 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엄격한 사회보장 적용으로 '과중한 사회보험료 부담'도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4대 보험(양로, 의료, 실업, 주택) 및 육아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임금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3월에 마련된 제11차 5개년(2006 ~ 2010년)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기계장비, 자동차, 선박 등과 같은 장비 제조업의 육성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중국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중인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외국인투자의 '장려'분야로 분류되었던 장비제조업 분야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자국의 경제안전을 내세워 자립기술 기반의 민족공업육성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선회하여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2].

"중국발 '차이나 리스크'를 주의하라. 수출환경도 나빠질 것이다." 이는 2006년 11월 17일 서울 코엑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2006년 평가와 2007년 전망'이란 심포지엄에서 나온 경고다. 이날 발표자들은 중국을 더 이상 '기회의 땅'으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근 서울대 중국연구소장은 "더 이상 중국을 위협이나 기회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리스크 측면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중국 리스크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첫째, 중국 경제가 금융 부실이나 재정위기 등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둘째, 급격한 도시화와 높아가는 불평등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자리에서 정상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급증한 외환보유액이 중국의 경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과거 외국인 투자를 무조건 환영하던 정책기조가 이제는 기술 이전 기업 등을 골라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투자는 현지 문화와 규범을 존중하면서, 글로벌 규

칙에 맞는 투명·준법 경영을 실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차이나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이태환 한중싱크넷 회장은 “중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 안보와 연계한 에너지 확보 전략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에너지 공동 안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III. 중국산업의 고도화

한국기업의 국가별 해외투자현황을 보면 지난 1980년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미국에 대한 총투자액이 약 167.3억 달러인데 비하여 1988년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중국에 대한 총투자액은 약 169.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연도별 해외투자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지역별 해외투자현황에 있어서는 총투자 규모 약 169.8억 달러 중 산동성에 약 45.3억 달러, 강소성에 약 35.6억 달러 투자되어 두 지역에 약 48% 정도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 해만 보더라도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산동성에는 칭다오(靑島)시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 한국기업이 일찍부터 진출하여 수천 개의 기업이 자리잡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6]. 최근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중국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국경제와 기업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위협보다 기회요인이 우세한 만큼 새로운 수익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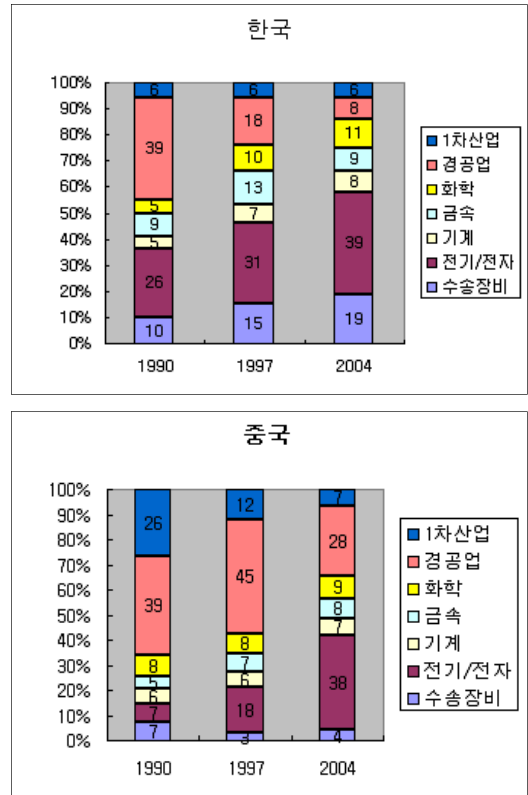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일반적 패턴을 대체로 충실히 따랐으며, 고도화의 속도도 줄곧 매우 빨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중국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 급속한 구조의 고도화가 나타난다. 2003년 현재 중국의 제조업 구조는 경공업, 중공업, 화학공업 등 3대 범주의 구성비율만으로 본다면 한국의 1990년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성비율을 보면 1990년 무렵의 한국에 비하여 수출장비와 기계의 비중이 더 낮고 전기·전자의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은 양국의 수출구조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그림 2> 참

조). 2004년 현재 중국의 수출구조는 1990년의 한국에 비하여 전기·전자산업에 더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5].

중국의 제조업 구조 고도화 수준은 한국에 비하여 대략 10~15년 정도 뒤쳐져 있으며, 한국에 비하여 전기·전자산업의 주도적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위협론’이 부쩍 자주 제기되고 있다. 종전에는 중국의 대표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라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은 또한 한국의 주력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한국이 설 땅이 없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및 한국무역통계로부터 계산.
 <그림 2> 수출구조의 변화 : 한·중 비교
 (Figure 2) The Change of Export Structure :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

그러나 중국 산업 발전의 수준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이와 같은 걱정은 단지 사태의 한 측면에 불과함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신

흥 주력산업의 부상은 또한 동시에 한국경제와 기업에게 거대한 수익기회를 창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등장하는 위협과 기회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중국의 도전은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6).

1. 전자산업이 산업구조 고도화 주도

중국의 전자산업은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기업 진출 증가와 더불어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시장과 인력자원을 목적으로 한 외자기업의 진출 확대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급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2010년 전자산업의 생산액은 전체 공업생산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최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상적인 지표에 비해 그 실질적 내용은 아직 취약한 편이다.

우선,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에도 중화학공업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계획경제 시대에 과도한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을 편 결과, 지나치게 비대하고 경쟁력 없는 중화학 부문을 보유하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부실 국유기업으로 남아 있다. 이 점에서 높은 중화학공업 비율은 오히려 중국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속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철강, 화학, 기계 등 전통적 중화학 부문의 비중이 1990년대 후반까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주도한 것이 전자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획경제 시대에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전자산업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결과, 이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으로 떠올랐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수출산업으로 부상해 이제는 중국의 수출구조상 경공업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자산업이 기본적으로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이지만, 그 내부에 노동집약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전자산업을 세부적으로 해부해 보면, 심지어 IT 부문에서조차도 아직은 자본·기술집약적인 부품 생산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조립가공이 현저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중후반까지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전통적 중화학공업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오히려 노동집약적인 부문의 비중이 상승해온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본격적인 중화학 시대 개막

산업경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2003년은 중국이 이전에 없던 강력한 통화팽창압력을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수백억대의 외국자금과 민영기업들이 철강, 석유, 화공산업 등의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한 한 해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중국산업경기분석보고서』가 출판되었는데, 이 보고에서는 10대 산업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자동차, 전력, 강철 산업의 상승추세가 빠르며, 이들의 연합적인 발전추세는 한편으로 중국의 산업구조가 새로운 소비 열기에 힘입어 조절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총체적 경제형세가 산업경기상승의 유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추동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구조의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주택과 자동차, 휴대폰 등이 새로운 주력 소비상품으로 떠오른 데다 중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 개혁이 크게 진전되어 중화학 부문 국유기업들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 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대형화된 일부 민영기업들이 중화학 부문에 활발하게 참가하기 시작한 점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중국위협론의 실과 허

이처럼 중국의 신흥 주력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면, 흔히 우려하는 바대로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산업이 큰 위협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러움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놀라운 중국의 경제성장과 잠재력이다. 2004년 말 이미 GDP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4분의 1이다. 전 국민의 일인당 평균소득이 이미 1300달러 정도이지만 구매력 수준으로는 이미 4000달러를 넘어서 5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쌀 20킬로에 한국에서는 5만원이지만 중국에서는 1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폐의 무서운 구매력을 실감한다.

섬유, 신발, 가전, 일반기계 등 전통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으며 향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이내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중국에만 집중될 경우 섬유 및 가전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인접 국가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등소평은 생전에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온포(溫飽)'의 단계에서 '소강(小康)'의 단계로 끌어올린다고 단언했다. 그의 후계자들은 이제 더욱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더 이상 가난만을 걱정하는 '배고픈 대국'이라는 수세적인 저자세 외교인 '도광양희(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에서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선다)'라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방과 인접국에서 중화주의적 팽창주의가 되살아난다는 비판이 일자 다시 '화평발전(和平發展)'이라는 용어로 수위를 조절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의도와 잠재력, 그리고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에도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5년간 3천만 명을 해고함으로써 경제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의 상존, 제도와 규정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 높은 실업률, 수출성장률의 둔화,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서부대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로 인한 천문학적 공공부채의 급증, 과잉설비투자로 인한 은행의 부실채권의 증가 등은 위기의 조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통계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4. 향후의 급속한 경쟁력 향상에 대한 전망

2000년대 접어들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경공업과 전자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전통적인 중화학 부문까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15].

향후 중국의 경쟁력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신흥 주력산업을 어떤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유,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 분야는 전통적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전자와 자동차산업에서는 외자기기업의 참여가 활발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단, 전자

산업에서는 100% 외자기기업이 많은 데 반해 자동차에서는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인해 국유기업과 외자기기업의 50:50 합작기업이 대부분이다.

과거에 전통적 중화학 부문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 부문을 정부의 보호를 받는 국유기업이 주도했고 외자기기업의 참여가 적어 경쟁압력이 크지 않았다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외자기기업이 많은 전자산업에서는 높은 경쟁압력의 자극을 받아 중국기업들도 생산성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최근에 전통적 중화학 부문에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활발히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향후 이들 부문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될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화학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수요구조도 점차 고급품목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이제는 이들 부문에서도 외자기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부문의 중국기업들도 이제는 정부의 보호 아래서 안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일부 상위 기업들의 경우 사업규모와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5. 위협보다 기회요인이 우세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러시에 따라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며, 중국의 기술추격과 한중간 수출경합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모든 품목에 걸쳐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새로운 부문이 발전하게 되면, 관련 소재와 부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또한 '세계의 시장'으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부 품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위협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품목에서는 새로운 수익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중국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는 위협과 기회의 측면에서

〈표 1〉 위협과 기회에서 본 한·중의 다양한 경제관계
 (Table 1) Economic Relations of Korea and China in Threat and Opportunity
 자료 : 김화섭(4), p. 3.

	시장 관계			생산 관계	
	세계시장 경쟁자	수출 견인자	시장 제공자	해외투자 대상국	대한국 투자자
기회	-	소재 수출 증대	소비재 시장 확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국내 생산 및 고용 증대
위협	시장 점유율 잠식	중국 일부 소재의 경쟁력 강화 추세	-	산업 공동화 우려	기술 유출 우려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세계시장에서의 상호경쟁과 국내 산업의 공동화 유발이라는 위협이 가중되고 있지만, 거대한 수출시장 제공 및 상호 투자의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의 고도화 촉진이라는 기회를 제공한다(〈표 1〉 참조).

지난 수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반면, 다른 품목들은 종전의 몇 배 수준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 대

중국 수출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관련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한국 제품의 수출기회가 극적으로 확대됐음을 뜻한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할까. 1990년대 초 이후 중국이 세계적인 경공업 수출기지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경공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한 경향이 있다. 이제 경공업에 뒤이어 중화학 부문도 마찬가지로 운명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중화학 부문은 경공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고 내부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우선,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의 수출을 세부품목별로 해부해 보면, 중국의 수출품목은 대체로 저급제품으로서 한국 수출품과의 경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중국 소재산업의 자급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 내에 고급품목이 주요 수출품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자동차나 조선 등 수송장비 부문 역시 향후 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과의 현격한 격차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산업에서는 다국적 전자기업들이 중국을 글로벌 수출기지로 육성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한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제품의 수출구조가 훨씬 더 자본·기술 집약적이어서 세부품목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수출경합도가 훨씬 낮다. 또 중국의 글로벌 수출기지화로 부품수요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6. 새로운 수익기회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와 중국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따른 한중간 경합 치열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고성장 전망과 소비의 고급화, WTO 가입에 따른 시장경제화와 개방화 확대 등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은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업구조의 고도화다. 단지 사업의 중심을 고부가가치 산업영역으로 옮길 뿐 아니라 같은 산업 내에서도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 쪽으로 이동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중국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셋째는 중국사업을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중국 현지사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향후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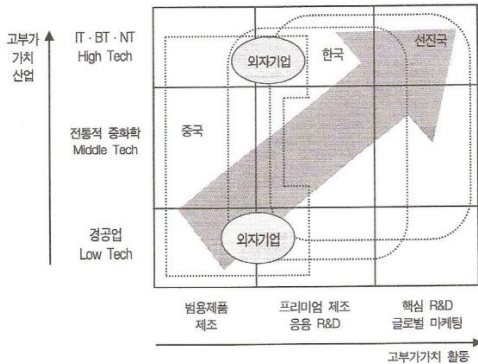
넷째는 차이나 리스크 점검이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의 의존도가 나날이 커져 가고 있는 만큼 급격한 경기하강 등 중국의 돌발사태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경제 전체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가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를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득증대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의 슬기로운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하고 있다.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중국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수준으로 본 사업구조라고 하는 각도에서 각 산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중국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급속히 고도화시키고 있지만, 각 산업 내의 사업내용을 보면 대체로 범용제품, 저급품목 중심의 저부가가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리미엄 제품 제조, 연구·개발,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할 역량이 아직은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외무역도 대체로 저부가가치 품목을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경공업과 IT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제품도 일부 생산하고 있지만, 이는 대체로 외자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글로벌한 가치사슬의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위치는 아직 한국 및 선진국 수준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료 : 지만수 외 4인(15), p.147
 (그림 3) 부가가치 수준별로 본 산업구조와
 사업구조 개편도
 (Figure 3) Industrial Structure and Business
 Structure of Added Value Level

IV. 중국진출 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중국의 사업환경을 미리 내다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전략을 갖춘 기업만이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노동력, 거대한 시장, 풍부한 자원 등 중국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들이다. 다른 문제면 몰라도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중국 시장.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예상 외로 “부족한 게 많아 고민”이라고 하소연을 한다. 조건에 맞는 인력이 없어 고민이고, 공장을 돌릴 에너지가 부족해 고민이고, 다 만든 물건을 파는 것도 어려워 고민이다.

1. 지속될 인력난의 극복

산업자원부는 2007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한상의 등 민간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요한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중국 세무 및 노무 관련 법규 강화로 인한 피해, 지식재산권 문제, 토지허가증 발급 지연 문제, 통관 및 물류 문제, 검사 및 인증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력난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잦은 이직률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중간 관리자인력의 생산

성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기업의 인력난도 심해지고 있다. 2004년 중국 도시 지역 실업률은 4.2%,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9%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의 각 지역별 노동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구직자수가 구인자수를 초과하는 전국 상황과는 달리 상하이, 저장, 광둥 등 기업밀집지역에서는 구인자수가 구직자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진출 한국기업 수만도 2천개가 넘는 이들 지역에서는 노동 시장이 공급자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수요 급증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지난 1990년대 말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면서 고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줄곧 있어 왔던 현상이다. 이것이 최근 들어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산업의 지지기반 역할을 해온 민공(民工, 농촌 출신의 단순노동인력)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이다. 그도 모자라, 이제는 일자리를 떠나는 민공이 늘고 있다. 민공들이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공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임금도 적고 일도 힘든 노동집약형 업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가장 ‘모시기’ 힘들다는 17~25세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들에게 있어 공장은 이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대기장소에 불과하다.

고급인력 시장도 마찬가지다. 조건에 맞는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2005년 대졸자 수는 31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대졸자 중 고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많지 않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지난 2005년 10월에 발표된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 ‘Addressing China’s Looming Talent Shortage’에 의하면, 한국기업을 포함한 83개 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은 중국 대졸자들 가운데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재는 고작 10%도 되지 않는다고 까지 평가한 바 있다. 고급기술인력 부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IT, 인터넷, 휴대폰, 게임 등의 분야에서 R&D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능력 있는 소수의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3).

2. 노동환경의 선진화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의 변화로 중국은 더 이상 한국기업의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노동환경의 변화는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으로 꼽히고 있다. 각 기업마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때

이며, 기업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기업인이 있다. 한국상회 인사노무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환태 카사미아가구 대표이사는 "신노동법 등 최근 중국의 노무에 관련된 새로운 발표 내용들을 보면, 많은 외자기업들이 사회적 추이에 잘 맞았을 뿐 엄밀히 따져보면 기존 법을 어긴 것들이 많다"라며 "새로운 규정들을 '이제는 법을 지켜 달라'는 중국정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 대표는 "베트남이나 그 밖의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 가지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과 철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내년에 도입키로 한 퇴직금제도를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커 중국에 진출한 4만여 한국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진출 외자기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규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저렴하고 생산계획에 맞는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앞으로 파견노동자의 고용기간은 만 1년 이하이며, 연장 고용희망 시는 반드시 정규직원으로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노무공사에서 다른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단기계약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를 예전처럼 활용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생산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사용자는 현재 유명무실한 노조와 집단계약 체결의무를 앞으로는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은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집단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집단계약 이외에도 취업규칙 제정에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기구의 동의가 필요하게 돼 있어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중국진출 다국적기업 노무관리협회 대표자는 "만일 법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외자기업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동계약법 초안에 대한 주중 한국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파견근무 규정의 모호성, 퇴직보상금 제도의 불합리성 등을 상세히 지적하는 항의 공문을 2006년 4월에 발송한 바 있다.

2006년 8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중국진출 기업의 현주소'에 의하면 향후전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인들은 노동비용 상승을 가장 큰 문제(47.2%)로 지적했다. 그 밖에 중국정부의 법률적 제재 강화와 지원감소라고 답변한 경우도 10.8%였다.

조사에 참여한 514개 기업 중에 노조가 구성된 기업은 17.1%에 불과하며 노사분규를 경험한 기업도 18.4%로 높지 않았다. 노동계약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각 사업장마

다 노조 혹은 노동자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집단계약 및 취업규칙 제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럴 경우 사용자 측의 불만과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내수시장

중국은 지난 10년(1994~2004년)간 연평균 11%, 최근 4년(2000~2004년)간 11.2% 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가구별 가처분소득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4년(2000~2004년)동안 연평균 10.7%의 증가율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소비는 이와 같은 소득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동 기간 연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은 8.5%에 머물러 가처분소득 증가율과는 2.2%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비의 질적 측면 또한 저조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고가, 프리미엄 시장의 비중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성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리라는 잠재력을 보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제한된 시장 내에서 타 글로벌 기업과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을 빠르게 쫓아오는 중국기업과도 힘겨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어떤 기업도 제대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마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점차 엿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 침체 속에서도 도시 가구에 한정해서 보면 2005년의 경우 10여년 만에 엔젤지수가 53%에서 37%로 현저하게 하락, 최저 생활수준의 소비구조를 벗어나 건강 생활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계형 소비 비중이 감소한 반면 선택형 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선진국형 소비구조로 이행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새로 성장하는 시장에 주목할 필요

동북아의 경제심장이면서 연평균 10%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세계 제1의 소비대국이 바로 중국이다. 그중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상류층의 소비시장에서 당당히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소호층을 잡기 위해 중국은 지금 세계적인 유아용품 기업들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1%를 사로잡은 한국의 유한킴벌리는 최고 명품 기저귀 '하오치'로 중국기저귀 업체를 평정했다. 중국 진출 2년 만에 중국 최상류층에게 넘버원으로 인정을 받은 '하오치'는 가격이 아닌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상위 1%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리미엄 마케팅과 기술력, 그

것은 명품이라는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한 유행캠페인의 도전이자 노력이었다.

그리고 최근의 중국 전지역적인 트렌드 중 하나는 여성 소비자의 증가다. 특히 젊은 층의 여성은 점점 그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직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노년층의 여성은 더욱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여성 소비자의 재량 소비는 2015년 아시아 부유국에서 3500억 달러, 중국 등 신흥국에서 1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의 소비 시장을 형성할 강력한 트렌드다.

또한 중국 역시 노령화로 인해 노년층 소비자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노령화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젊은 세대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추어지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로 노년층의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노년층은 오래 살 뿐 아니라 전보다 건강상태도 훨씬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은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강력한 소비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도시의 노년층 소비시장에서의 재량 소비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17%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10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중국에서의 급격한 도시화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향후 10년 간 중국의 도시인구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도시화 트렌드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 소비시장의 규모 및 경제를 상당히 향상시킬 것이다.

5. 에너지 부족 장기간 지속 전망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국의 에너지 산업 현황,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따르면, 중국은 연평균 10% 가까운 고도성장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전세계적인 에너지 고갈, 중동정세 불안 지속 등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 요인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지속적인 고도성장 달성을 위한 핵심 변수로 판단하였다.

보고서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적인 중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은 이른바 '중국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에너지 수입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석유는 전세계 매장량이 1조 195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채굴 가능한 기간은 4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비록 최근 들어 수소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나,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원보유국들의 자원 민족주의가 현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2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이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어 세계 자원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는 지난 2004년부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 하락에 따른 유가 상승 영향의 완화와 전자,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유가 상승의 타격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원화 환율 하락세가 둔화되고 중국의 에너지 소비 급증세와 해외 자원 확보 노력 강화에 따른 세계 자원시장의 공급 부족 가속화로 에너지의 세계 시장 수급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내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자원 확보가 정상외교의 중요한 몫을 차지한 것은 그만큼 중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에너지 생산과 공급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따라 가지 못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어두운 전망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업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일단 전력의 경우 앞으로 최소 2년간은 어려움이 클 것이고, 석유나 수자원은 향후에도 상황이 크게 호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상용 자가 발전기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국인들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절약정신이 약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수돗물 시간제 공급을 비롯해 공급 차원에서의 절약은 늘 시도됐지만 절약 교육 부재로 일단 공급이 충분하다면 쓰고 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에너지 소모율을 2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점차로 집중되고 있어, 한국의 자가 발전기 사업이나 에너지 절약 기술 및 관련 사업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의 발전된 기술을 중국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금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한시 바빠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더 많은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것이다.

〈표 2〉 산업별 대응전략
 (Table 2) Industrial Correspondence Strategy
 자료, 은종학(11), p. 3.

영역	고부가가치화	집중화	투자전략	시장공략	리스크 관리
수단	연구개발, 제품차별화	선택과 집중 분업구조 공고화	투자, 현지화 제고, 중국내 조달	시장 선택	리스크의 원천 식별
장소	한국	한국/중국	중국	중국	글로벌
전자	선진국 추격을 통한 기존 우위의 공고화 지적재산권의 확립 미래 산업 우위 확보	고급/고기술/신개념 제품에 주력	범용제품의 지속 이전 중국 조달 강화	고기술 부품/소재 지속적 공급 미래형/고기술/신개념 소비재 시장 창출	세계 경기 변동 기술 구조의 근본적 변화
철강	세계적 원가 경쟁력 지속 유지 범용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	중국 수요업체와의 연결강화	국내 고도화에 맞춘 전략적 이전 중간 가공공정 적극진출	자동차용 강재 적극 개척	중국 경기 변동 생산 과잉
조선	노동 절약적 기술 개발 선박용 기계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선박 및 기계에 집중	노동집약적 공정 이전	중국 시장 적극적 개척 선박용 기계 공급	주기적인 산업 경기 변동
자동차	선진국 추격을 통한 기존 우위의 공고화 부품기술 강화 원가 경쟁력 제고	승용차 완성차 고기술 부품	완성차 확대 가능 부품 산업의 선별적 이전	중국내 모델 개발 부품시장 진출 제3국내 범용부품 수출기지화	중국 승용차 시장의 성격 변화
석유 화학	생산효율성 강화 제품 세분화	수급이존 탈피 차별화된 제품	중간 가공공정 적극진출	중국 산업고도화의 수요 대응	중국 경기 변동

현지의 진출기업은 중국 대신 북한의 개성공단 입주 의향에 대해서 31.4%의 기업이 '있음'으로 응답한 반면에 68.6%의 기업은 '없음'으로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4 참조).

V. 향후의 산업별 대응전략 및 지원정책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면서 한국기업은 제품의 고도화,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강화하고, 신홍시장 투자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생산요소 활용, 중국 내 수시장 공략, 중국 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안정적인 분업구조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방법은 한·중 분업의 실제 내용을 한국 국내기업과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과의 분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전술한 중소기업중앙회(14)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현지의 진출기업은 향후 1~2년 내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41.3%의 기업이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없음'은 37.0%, '미결정'은 21.7%로 2004년에 비해서 향후 중국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향후 중국 추가 투자계획 추이
 (Table 3) The Trend of Added Investment in China
 (단위 : %)

구분	2004년	2006년
있다	52.5	41.3
없다	30.3	37.0
미결정	17.2	21.7

〈표 4〉 개성공단 투자계획 추이
 (Table 4) The Trend of Investment Plan in Kaesung
 (단위 : %)

구분	2004년	2006년
있다	33.3	31.4
없다	66.7	68.6

한편 진출기업은 우리 정부의 지원 희망사항으로 '현지 경영 애로 및 중국 정부 협력담당 사무소 개설'이 58.9%, '정확한 현지 투자환경 정보제공'이 23.4%, '현지 거래처 알선'이 13.3%, '기타(현지 한국공관의 적극적 지원 등)'이 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담 상담창구 설치 및 진출 전 현지 투자환경의 정확한 정보(중국의 정책변화 등) 제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중국 각 지역에 소재하는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의 현지 사무소 및 현지의 한국상인회 등이 중국진출 기업을 종합적으로 경영 지원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전방위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정보통신연구원(원장 김태현)은 2005년 9월

10일 중국 강소성 성정부에서 주관하는 국제 'CIS 2005 (남경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진출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 기관 간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체결된 MOU에는 양국의 정책교류 및 관련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해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국 강소성 성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중국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처음으로 열렸던 전시회는 S/W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중국 강소성 정부가 '중국 S/W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의욕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상해를 포함한 강소성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소성 정부측에서 온라인게임 등 S/W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이 분야의 중국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참가기업의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참관객들에서 직접 설명·시연하는 '한·중 기술이전 설명회'도 개최하여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과 동시에 기술이전, 기술협력 등을 통한 기술교류성에도 기대된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는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IT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 기술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VI. 결론

향후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된다면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한국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모든 품목에 걸쳐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새로운 부문이 발전하게 되면, 관련 소재와 부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또한 '세계의 시장'으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부 품목에서는 우리 한국기업들이 위협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품목에서는 새로운 수익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존 사업영역을 침범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 경우 제 자리에 머무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거대한 수익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각 지역에 소재하는 우리의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의 현지 사무소 및 현지의 한국상인회 등이 중국진출 기업을 종합적으로 경영 지원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시장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13억 인구를 보면 기업 환경도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난제들이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산업의 고도화가 지속되면서 중국진출 기업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잦은 이직률로 인한 숙련 인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의 생산성 저하 및 고급인력의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 정부의 신노동법 발표에 따르는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

셋째,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선진국형 소비구조로 바뀌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생계형 소비시장이 아니라 새로 성장하는 상류층 소비시장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중국의 사업 환경을 미리 내다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전략을 갖춘 기업만이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석진·김지목, 중국 신흥 주력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LG경제연구원, 2005.3.
- [2] 김주영, "기술자립의 산업정책으로 내수시장 진입 더욱 어려워질 듯", 수은해외경제, 2006. 10.
- [3] 김지목, 중국 진출 기업이 넘어야 할 3대 과제, LG경

- 제연구원, 주간경제 860호, 2005.
- [4] 김화섭, “한·중 경제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한 통합전략 필요 - 섬유·의류산업의 사례 -”, 산업연구원, 제254호, 2005. 4.
 - [5] 노형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품질혁신전략, 대한상공회의소, 2004.
 - [6] 노형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혁신전략, 한국전통상학연구, 제 19집 제1호, 한국전통상학회, 2005년 6월, pp. 95~116.
 -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의 원인과 시사점, 2006년 9월 28일.
 - [8] 산업연구원, 중국의 에너지 산업 현황, 전망 및 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 [9] 溫世仁 지음·안유옥 옮김, 중국경제미래, 한국경제신문, 2004.
 - [10] 溫世仁 지음·최원규 옮김, 중국 서부를 선점하라, 한국경제신문, 2004.
 - [11] 은중학, KIEP 중국 위협 재평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2.
 - [12] 정진하, 포지션닝전략 시급한 중국시장, LG 주간경제 (4/3), 2002.
 - [13] 주대영, 중국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전자산업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06. 12.
 - [14]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국진출 현황 및 애로 조사 결과보고, 중소기업중앙회, 2006. 9.
 - [15] 지만수 외 4인,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 중국 위협의 재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2006.

저 자 소개



노 형 진

-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공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경영학박사)
 일본 쓰쿠바대학 대학원 수료
 (경영공학 박사과정)

- 주요경력
 일본 문부성 통계수리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러시아 극동대학교 한국학대학 교환교수
 중국 중국해양대학 관리학원 객원교수
 경기대학교 재무처장(현재)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전공 교수
 (현재)

- 연구분야
 품질경영, 통계학(다변량분석),
 비교경영학(한국·미국·중국·일본
 등 비교연구)